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6. 16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美, 사우디 등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 피력
  - 6.8 외신은 사우디를 방문 중인 「토니 블링컨」 美 국무장관이 美·결프협력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중동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
    - ※ 그는 개회사를 통해 “미국은 이 지역에 계속 머물 것이며, 협력에 깊이 투자하고 있고 중동전역과 쏘세계의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다”고 강조
- 美 국무장관, ISIS 난민 본국 송환 촉구
  - 6.8 「블링컨」 美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市에서 개최된 ‘테러 격퇴를 위한 장관급 회의’에서 서방 국가에 ISIS 관련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
    - ※ 미국은 과거 ISIS 장악지역 재건에 1억5천만달러(약2천억원) 지원을 약속

#### 유럽

-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 사망 · 3명 부상
  - 6.11 언론은 지난 10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파르스타 스트롬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으며,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    - \* 경찰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스웨덴 전국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총 144건으로 18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, 사건 대부분 스톡홀름 일대에서 갱단에 의해 발생
- 프랑스, 난민 흉기테러 이후 이민법 개정 공방
  - 6.11 언론은 지난 8일 프랑스 휴양도시 안시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에 의한 흉기 테러로 6명이 다친 사건을 두고 프랑스 정치권에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이민정책 개정 논의가 불거졌다고 보도
    - ※ 반면 엘리자베스 본 총리는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테러사건과 이민법 개정을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수진영에 반대

## 아 · 태평양

- 중국, 이란·파키스탄과 첫 3자 국장급 대테러 협의
  - 6.8 중국 외교부는 8일 베이징에서 이란·파키스탄과 처음으로 3국간 국장급 대테러 안보 협의를 개최, 지역 대테러 상황·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범에 대한 공동단속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
    - ※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3국 대테러 안보협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부언
- 아프가니스탄, 모스크에서 폭발 사고 발생
  - 6.8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 바다크산주 「니사르 아흐마드 아마디」 주지사\* 장례식이 진행 중인 모스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    - \* 同人是 이틀 前 6일 바다크산주에서 무장단체의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

## 중 동

- 이스라엘軍,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급습
  - 6.8 언론은 이스라엘軍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지역에 진입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여 최소 6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
    - ※ 이스라엘 측은 지난해 11월 예루살렘에서 폭탄 공격을 감행한 테러리스트의 거주지를 파괴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실시했다고 부언

## 아프리카

- 소말리아, 호텔 인질테러로 민간인 19명 사상
  - 6.9 언론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市 소재 호텔에서 인질테러가 발생해 민간인 6명·보안군 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으며, 테러범 7명은 사살되었다고 보도
    - ※ 알샤바브는 同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
이스라엘, 예루살렘 버스 자살폭탄 테러 사건

- '02.6.18 오전 8시경 이스라엘 예루살렘\*에서 아랍계 청년이 시내를 달리는 버스안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, 20명이 사망 · 55명 부상
  - \* 同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도시로 유대교·이슬람교·기독교의 주요 성지이며,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지역
  - 테러범은 사람들이 많은 출근 시간대를 노리고 도심으로 이동하던 滿員 버스에서 몸에 두르고 있던 폭탄으로 테러를 자행
- 사건 직후 팔레스타인 '하마스' 산하 무장단체가 테러 배후를 자처
- 이에, 「아리엘 샤론」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측의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한 비난과 함께, '테러에 맞서 투쟁'할 것을 언급
  - 또한, 「베니아민 벤엘리저」 국방장관도 보복공격 결정을 발표
- 한편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“테러 행위가 이스라엘측에 팔레스타인 침공의 명분만 제공한다”며 테러 규탄 성명을 발표

<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분쟁 >

- (개요) 팔레스타인 영토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총칭
  - 이스라엘 :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,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을 제한
  - 팔레스타인 :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,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투쟁하는 중
- (관련 단체) 하마스(HAMAS),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 등
- (갈등계기)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분할하는 계획 발표 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아랍국가들의 반발로 인한 전쟁 발발,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후에도 여러차례 분쟁이 발생